

# 정보사회와 가족 :

- 정보사회에서 가족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

Information Society and the Family : Focused on the Change of the Family Life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시간강사 고 선 주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Lecturer : Koh, Seon-Ju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논의 |
| II. 정보사회와 가족                   | 참고문헌        |
| III. 가족의 삶의 변화에 대한<br>실증적 자료분석 |             |

## <Abstract>

We are been overconcerned about the economic chang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But there is clear viewpoint that we should consider the social or familial changes in conjunction with the emergence of an 'information society'. Additionally,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for example internet, WWW and their network community increase the change to family and family member's life. Thus, this paper is prepared to examine how the information process is presented in our family life. The whole paper has three sections. The first chapter introduce the author's topic and related viewpoints, and the second explored many aspects linked family life in information society. Finally the third chapter explained about the studied results like the information gap according th sex and age, the familism and the concept of child as reward/cost in the informationalized group.

### I. 서론

현대는 정보사회<sup>1)</sup>다. 생산양식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과거의 산업혁명이 생산양식뿐 아니라 생활양식으로서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정보화의 흐름 역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화란 사회·경제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커지

1) 경우에 따라서는 information society를 정보화 사회라고도 번역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배규한과 임창규(1999)의 지적대로 정보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의 유형을 정보사회라고 명명한다. 이는 산업혁명 또는 산업화의 결과로 형성된 사회를 산업화 사회로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는 과정으로 단순한 기술혁명 이상을 의미한다. 정보화의 핵심은 단지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통신 기술에 불과하지만 이것에 의해 펼쳐지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가능한 것 모두를 상상하고 상상한 것 모두를 가능하게 펼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 펼쳐지는 사이버 공간의 하이퍼스트릭처는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비순차적, 비계층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순차적이고 계층적이던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쌍방향적 의사소통 특성은 지금까지 공급자에 의한 수용자로의 일방적 전달로 규정된 커뮤니케이션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메시지 호혜성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과 하이퍼텍스트로 대표되는 최근의 변화를 정보화라고 규정짓는 데는 모두가 합의하면서도 과연 정보화가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들어서고 있는 변화의 장은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흔히 정보화를 사회전반적인 지표로 해석한다든가 혹은 전자문명과 관련된 변화로 접근함으로써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정보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가족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자가 집에 있게 되는 재택근무의 등장이다. 미국의 경우 94년에 실리콘 벨리에 있는 7개 회사에서 3백명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무려 2백만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 전체로는 1천만명이 넘으며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본다(중아일보, 1999년 12월 31일자). 그러나 이러한 재택근무제의 장점으로 흔히 출퇴근의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과 가족과의 시간이 증가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노동자가 다시금 가정안으로 돌아온 최근의 경향이 가족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다. 페이스 팝콘(1999: 18)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의 하나로 누에고치처럼 보호막안으로 칩거하려는 현상인 코쿠닝(Cocooning)을 이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현실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포근한 '가정 같은' 환경 속으로 파고 든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재미로 집안으로 파고들었지만 이제는 무서워서 집안으로 파고든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코쿰 속에서 손가락 끝으로 하는 온라인쇼핑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이러한 가정이 과연 진정으로 포근한 환경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온라인 쇼핑 역시 여성에게는 정보화의 중요통로가 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아주 쉽게 '따뜻한 가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무관심한 것이다.

현재의 정보화는 개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변화는 가족과 연관된 삶의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편이다. 현재와 같이 가족의 시간과 공간과 관계적인 측면이 하나도 배려되지 않아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보화에 관련한 변화와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개인의 삶이 가족이라는 장 안에서 구현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보화가 가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터넷으로 대별되는 현재의 정보화의 흐름에서 가족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윈도우 환경과 마우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로 연결되는 웹 방식은 기존의 사고체계를 넘어서 行態 자체가 존재방식을 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로 나타나고 있는 듯 하다. 이제 이것은 전세계의 네트워크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사회가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일은 앞으로의 정보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족의 제 측면을 살피고 문제를 예측하는데 있어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정보화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줄 것인가를 주된 관심으로 삼았다. 우선 과연 정보화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먼저 규정하고 특히 어떤 측면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그 후에 이러한 정보화가 가족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의 변화와 연관된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보사회에서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II. 정보사회와 가족

### 1. 정보사회를 보는 관점

우리는 정보화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더불어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의미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마다의 예측과 변화는 독자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즉, 변화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있으나 수많은 저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모습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편의대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변화가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다양한 관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사회의 변화를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변화를 어떠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류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정보사회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하고자 한다.

먼저, 정보사회를 보는 시간적 관점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과도 연관된다. 초기의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들은 다분히 공상적인 과학의 기술에서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현재와의 연결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현실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그보다는 현재부터 계속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어느 한 시점으로 미래를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현재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와 미래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미래도 미래의 시점에서는 현재일 뿐이다. 또한 미래는 결코 현재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못한다. 현재의 결과가 미래인 것이다. 이는 역으로 추론하자면 미래의 결과는 현재에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추론할 수 있다면 현재 그 문제점을 찾아냄으로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정보사회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우리사회는 이미 정보사회에 들어섰다고(김병조, 1997)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의 가족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단계로서 구체적인 변화들을 논할 때 있어서 기술공학적인 시각에서 논할 것인지 아니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회적 측면에 둘 것인가의 의미이다. 즉 정보사회의 도래라고 했을 때 변화되는 측면을 통신이나 컴퓨터 등에 중점을 둔 기술공학적 측면에서 논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구조의 변화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논할 것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를 논하는 많은 글들이 기술 공학적 측면에서 유도 피아를 거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관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모순된 이중성을 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의 영향과 문제점들을 짚어보려고 하므로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해석하는 기술공학적 측면은 잠시 접어두고 정보사회에서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다분히 연구자의 해석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다분히 탐색적인 소고로 그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2000년은 결국 디지털 사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족학 분야에서의 탐색적인 접근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

업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계속해서 개선된 관점과 시각과 비판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 인터넷 사회와 삶의 변화 : 웹 생활양식의 등장

가족의 입장에서 정보사회를 논의하기 이전에 앞서 과연 정보사회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간략한 고찰이 필요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사회를 단순히 몇몇 기기의 편리한 사용을 통해 정보사회라고 일컬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연 정보화라는 말이 어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를 우선적으로 살핀 후에 가족과의 연관성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사회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현상으로 집약될 수 있다. 즉, 일부집단에만 국한된 인터넷은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보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컴퓨터와 관련된 약간의 습관 내지는 기술 같은 것이 왜 인간의 존재방식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이에게 접근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은 한마디로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무한히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첫째,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형이 변화하게 된다. 즉, 정보를 다루는 능력을 지닌 인간형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정보해득 능력이란 컴퓨터를 통해 표현된, 광범위한 정보 출처에서 나온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찾아낼 줄 아는 능력도 포함된다. 기존의 know-how에서 know-where적

인 접근이 다분히 요구되는 것이다. 인터넷은 우리가 정보의 보고에 접근하여 찾은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매체이다. 접근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정보를 개인이 다시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재가공할 수 있다(폴 길스터, 1999). 따라서 인터넷이 활용되는 세대에서는 현재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즉, 저장된 정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점은 가치 있는 정보를 판별해 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중 쓰레기와 가치로운 정보를 분류해내서 자신의 것으로 재조직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소유에 관심을 지녔던 사회와 선택과 활용, 그리고 재조직에 관심을 갖는 사회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은 하이퍼스트럭처는 인간의 사고 체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하이퍼 텍스트로 결합된 구조는 기존의 순차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뛰어 넘는 것이다. 하나에서 둘로 진행된 연후에야 셋이 가능한 순차적 방식의 논리성을 교육받은 세대와, 공간적 개념의 도약이 가능한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하는 세대와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가족원과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매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측면에서 인터넷은 사고의 한계를 뛰어 넘는 기존질서의 파괴자일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인터넷의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매개로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삶의 양식이 변화한다는(김유정, 1999)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컴퓨터를 통한 의사소통은 원하는 자아상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써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은 대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제외된다. 대면적 접촉의 경우 언어적인 의사표현을 제외한 신체적 동작, 얼굴 표정, 혹은 점유하고 있는 위치등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지위나 호의, 적대감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은 이러한 상황적 요인이 부재함으로써 비언어적 반응

에 대한 즉각 반응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나누는 양자간의 평등성이 보장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기존에 상대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강조하는 기성세대들의 기존질서가 인터넷 세대에게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로 비취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간 갈등은 가족 내에서 그리고 사회 내에서 새로운 갈등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인터넷의 보급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한다. 기존의 관계망에서는 물리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공간과 시간상에서의 만남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리적인 이동을 해야 만이 만남의 장을 이룰 수 있었다. 전화나 편지 등의 매체는 기존의 물리적 접촉을 전제로 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옆집과 지구 반대편의 개념이 동일하게 와 닿는다. 물론 어떤 이는 지구반대편의 사람과 인터넷을 즐기기 위해서 옆집 사람과의 대화를 잃어버렸다고 한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실시간에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문화권을 묶어 줄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만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또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과 받는 시간의 일치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유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의 가족/친족 관계망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졌던 근접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한 마디로 정리해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웹 생활양식(Web lifestyle)의 등장(빌 게이츠, 1999: 150)'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의 대중적 확산을 전기 생활양식의 연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 우리 생활자체를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기 생활양식과는 다르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는 것

이다. 또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웹 생활양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리고 있다. 1998년에 6천만 이상의 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웹을 이용하고 있으며 웹 생활양식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배우고 구매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나 서면 자신에게 보내진 e-mail이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되고, 저녁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가족 전용 웹사이트에 들러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대화방에 들어가 다가오는 연말 모임에 무엇을 할지 의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과 3년전만 하여도 먼 미래의 일이라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 우리의 주위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웹 생활양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웹 업무양식(Web-business style)에 국한되어 왔던 것에서 생활과 업무의 한계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998년 영국에서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영국성인중 25%가 전보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줄었다고 한다(빌 게이츠, 1999: 162).

그런데 이러한 웹 생활양식의 한 복판에 놓여있는 것은 바로 가족이다. 웹 업무양식과 웹 생활양식의 전개는 결국 모든 생활의 중심을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장에 놓이게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다른 정보탐색이나 오락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을 웹으로 통합함으로써 가족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지닌 웹 생활양식에서 자란 자녀세대는 성과 세대에 기초한 질서를 거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가족생활을 영위하려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이제부터의 가족은 지금까지의 구성원들이 지녔던 특성에서 보다 자유로운 보다 평등지향적인,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가족원을 맞이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서 작은 변화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계라면 최근의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이로인 한 웹 생활양식의 등장은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 3. 정보사회와 가족

#### 1) 직장과 가정의 재결합 : 여성에 대한 재택근무의 함정

정보사회가 가족에게 어떠한 변화를 불러왔는가를 생각하는 데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기능의 재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기능과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통한 노동력 재생산기능이 분리된 반면, 정보사회에서는 재택근무<sup>2)</sup>를 통해 생산기능이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재택근무는 비록 그 발전단계상 초기단계인 단순형 재택근무에 머무르고 있지만(조성혜, 1995), 이미 그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택근무는 soho라고 불리는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자영업과 정보 제공업 등의 자기고용형태와, 기업주에 고용되어 있는 형태로 대별되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시간제 취업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아웃소싱의 개념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근무시간의 융통성과 자녀양육과의 병행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이 곧 단점으로 여성인 재택근무자에게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류영달(1998)은 재택근로의 긍정적 기대효과로 통근부담의 경감과 여유있는 생활의 실현, 자유시간의 증대,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 고용기회의 확대, 재난 등 통근곤란시에도 근무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장점들은 여성의 경우에 그대로 이것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성 재택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작업실이 배정되고 배우자가 방해물로부터 막아주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지만 여성은 독립된 공간을 각거나 업무와 가사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Huws, 1990, 류영달, 1998서

재인용). 우리나라 연구(조혜정, 1995)에서도 여성 재택근로자들은 저녁 9시 이후에 가장 집중적인 업무시간을 가진다고 한 바 있어 여성들이 재택근무로 가정에서 근무하는 것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남녀의 역할분리의식은 대체로 강한 편이다. 전통사회에서도 夫婦有別이라 하여 남자의 도리와 여자의 도리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일반적인 여성의 일생이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무게를 혼자서 짊어진 고된 삶인 것 또한 사실이다. 평등의 가치가 유입되면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이 비하여 열등한 편이다. 최근에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이 취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대체로 2차 적인 일로 간주되기 마련이며, 가사노동과 특히 자녀양육은 여성의 역할로 계속 규정되어 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여성이 가정 내 역할을 전담하고 거기에 취업역할도 병행하는 수퍼우먼이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각광받고 있기에, 여성일터의 가정 내 복귀는 커다란 위협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즉 여성에게 이중노동의 부담이 노골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것이다.

직업과 가정이 분리되어 있는 대부분의 여성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녀양육 문제이다.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돌봐 줄 수 없다는 죄책감이 여성 직

2) 재택근로, 재택근무, 재택원격근무자, 원격근무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개념은 정보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다양하게 확대되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영달(1998)은 원격근무의 유형으로 원격사무실근무, 재택근로, 직행직귀, 모바일 워크로 구분한 바 있으며 가정학 분야에서는 문숙제·김지희(1997)가 가정내에서 또는 가정으로부터 수행되는 유급의 노동으로 재택근무를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체로 재택근무라는 용어가 근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서 최근의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의 결합으로 가능해진 SOHO(small office, home office)의 개념이 추가되어 혼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재택근무는 가내노동의 가정내 생산개념보다는 정보화 기기와의 결합으로 인한 근로공간의 선택적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업의 발전과 동시에 자녀양육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답을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에서 찾으려 한다면 이것은 결코 여성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보사회는 오히려 여성에게 유리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더 이상 육체적인 힘의 우월성이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도록 훈련받은 여성의 경우에 더 탁월한 성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대부분의 여성이 아내이자 어머니이며 이들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일 수 있다. 여성이 지닌 장점과 기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제약조건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한은 사회적인 성취라는 것은 부차적인 잉여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사회에서 보편적이라고 인정되는 재택근무는 결국 여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 2) 가족원의 이성결합의 대안

일반적으로 가족은 이성의 남녀와 그 사이에서 출생 혹은 입양한 자녀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의 거부와 실패, 노동 본질의 변화, 출산통제의 증가, 양성간의 관계변화, 직업과 교육경향의 변화 및 생물학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가족의 계속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출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한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가족(The family)'이라는 원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도전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동성애가족의 출현이다. 미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1983년의 경우에 부부에 대한 연구(Blumsyeyn & Schwarty, 김태현, 1993서 재인용)에서 이미 동성애자도 부부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성애 가족의 경우 생물학적인 출산 능력 때문에 종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인류

의 생존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정보사회에서 더욱 보편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꽃피고 있는 소위 사이버 문화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온도와 도파문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사회에서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고 자신을 숨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생각보다 이들의 공격력과 단결력 또한 막강하다.

실제로 1996년 11월 초, 하이텔의 자유게시판인 플라자에서 동성연애에 관한 난상 토론이 한창이자 국내 PC통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동성애 모임에서는 곧 바로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하이텔로 가서 협조의 한마디로 그 논쟁을 거둬고 나서자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통신 서비스업체의 무시할 수 없는 최대고객중 하나이다. 미국 내 최대 통신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사(AOL)의 자료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에 대화방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더니 3분의 1이 동성연애자이었다.(정태영, 1997: 189-191).

또한 가족에의 도전은 현실세계와는 다른 사이버 세계에서의 부부관계를 가짐으로서 혹은 사이버 섹스를 통하여 기존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혼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부부간의 성적인 배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현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사이버 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과 관련한 무한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사이버 섹스'를 보는 사회의 시각은 그 특이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안전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성병에서 안전하다는 것이지 이 성적 관계의 정신적인 영향과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의 성인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사이버 세계에서 또 다른 부부관계를 설정할 경우 기존의 현실적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인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도권을 철저하게 행사함으로써 이성교제를 통한 사회화나 이성에 대한 학습기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가족이 반드시 이성의 성인과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화 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 기존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 3)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

전통사회에서 기본적인 사회 단위는 가족과 친족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농경중심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구성과 기능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친족공동체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기는 하나 양계의 근친위주(옥선화등, 1998)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친족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기능성 위주의 관계망에서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애정에 근거한 관계망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거의 관계망이 지녔던 기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가상공동체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자와 이용하는 자의 상호이익에 입각하여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인터넷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특정 사이트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중심의 회원관리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고 회원 하나 하나는 강력한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들의 성공여부는 결국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회원과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또 가상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함

으로써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얻으며 실질적인 공동구매나 교섭력등을 발휘함으로써 가상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인 이익과 소속감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가상사회 전개를 보는 관점을 이러한 가상 공동체의 발전을 예견하고 있다. 즉, 앞으로의 가상사회는 세 가지 관심사-지역적 관심, 인구 통계학적인 동질성, 동일한 관심사-중 하나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존 하겔 3세·아더암스트롱, 1999; 165-168), 이중에서 기존의 친족공동체와 가장 유사한 성향을 갖는 것은 인구 통계학적 가상사회라고 볼 수 있다. 즉, 같은 성별이나 연령, 인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10대 청소년이나 편부모, 노인들을 위한 가상사회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종류의 가상사회는 이제 가장 최근에 생기기 시작했지만 참여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지닌 부모들의 모임같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양자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한 문제라던가 자녀가 하나인 부모들이 관심있어 하는 다양한 화제거리를 제공한다는가 하는 식으로 과거보다 오히려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지원을 더 강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 형성의 강력한 수단은 대부분 기존의 가족/친족 관계망들이 지원해 왔던 역할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품앗이 형태의 노동력을 주고 받는다는가 혹은 회원의 교섭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구매 그리고 회원들간의 정서적인 유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결과적으로 가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가족의 기능이라 여겨 왔던 정서적지지 기능의 강화, 혹은 살아있는 삶의 지혜에 기반한 정보의 공유, 고민의 해결등 가족이 제공해왔던 많은 역할에 대해서 인터넷 공동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은 결과적으로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 소위 N 세대(N-generation)이라고 불리는 70년대 후반에 출생한 젊은 층의 경우 가상공간



에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향유하기 시작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대들이 만들어 가는 기성세대와의 마찰 혹은 감성지향의 삶, 그리고 이들의 가족은 기존의 가족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 갈 것인가는 앞으로 관심을 지녀야 하는 영역인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공동체가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라날 것인지 혹은 과거의 친족공동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을 지원하는 체계로 자리잡을 것인가는 현재 우리의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과거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부들이 지니고 있던 고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여성과 어머니의 힘을 묶어낼 수 있는 고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4) 동일단위로서의 가족 : 정보의 공유와 불평등

정보사회의 가족을 논할 때 짚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가족이 정보사회에서도 하나의 단위로 기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통사회에서 가족은 하나의 노동력 단위이자 토지소유의 단위이었다. 또한 가족은 신분의 세습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틀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과연 정보사회에서도 가족이 그러한 기능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가족 내부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정보사회에서 가족은 분명히 하나의 거주공간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단, 가족의 공간은 기존의 거주중심의 개념이 아닌 작업공간의 의미가 더해질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기능이 가정에서 떠났던 것과는 달리 정보사회에서는 다시금 가정 안으로 생산 기능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주택 시장에서도 광케이블 설치로 빠른 인터넷을 보장하는 선전문구가 주택분양에 등장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먹기 위한 공간에서 이제는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고 활용하는 공간으로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된다면 기존의 주택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가족은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가치를 지닐 것이다. 기존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수용이 있는 한은 한 가족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신 ID의 공용이라던가 IP사업의 가족 운영 등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정보의 탐색을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하나의 단위가 된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가족의 신분은 공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단지 어느 가문에서 출생한다는 것이 장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코드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동일한 가족이라도 실제 정보의 접근에는 차이가 있게 되므로 소외되는 집단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대상이 실제로는 여성 노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사회의 기본적인 자원이 된다면 이 자원을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한 단위의 문제가 된다. 흔히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공유와 배제문제는 비단 국가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다. 즉, 한 국가 내에서 기본적인 사회구조인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사회가 변화하면서 다른 많은 사회구조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기능이나 역할이 다른 사회제도에 이양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접하고 있는 구조가 바로 가족이다.

가족은 同財集團으로 공동의 재산을 가지고 함께 소비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정보의 경우도 가족이 공유하는 자원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만약 가족원이 정보를 기존의 다른 재화나 화폐와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공유한다면 정보의 공유와 더불어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세습은 지금까지의 어떤 재산보다 더 위력적인 계층의 세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다면 정보사회는 평등한 사회이기보다는 정보에 접근 가능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간의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한 차이가 더욱 심화되는 사회일 수 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가족이 앞서 지적인 바대로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려면 가족원간에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가족 안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정보화 도구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보가 주어져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가족원이라면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터넷 같은 정보의 보고 들은 결국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을 할 수 있지만 이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적합할 수도 있다. 정보의 독점은 사회와 국가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족 내부도 치열한 권력 투쟁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서 밀려난 나머지 가족원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환경에서 머무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정보 사회에서도 명암은 있다. 정보와 지식이 가치생산을 위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록 정보와 지식에 대한 불평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즉, 산업사회에서 부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정보사회에서도 정보이용을 하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will vs. will-not) 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 사회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개인이 접하는 정보량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외에 개인이 접한 정보의 질적 우수성과 접근 가능성, 신속성 등의 요인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보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도록 배포된 것 같지만 그 실질적 이용에서는 차별화 된 배제구조가 존재하며 따라서 정보 불평등의 문제가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해결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 사회에서의 불평등 차원은 크게 4가

지로 볼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간의 격차인 성적 차원과 2, 30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연령적 차원, 그리고 지식노동자와 주변 노동자간에 나타나는 계층문제의 차원 그리고 국가간 혹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같은 지역적인 격차의 차원이 해당된다.

이들 4가지 불평등 차원 중 동일한 가족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과 소외의 문제가 바로 여성과 노인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보화에서 여성과 노인의 소외현상이 모든 국가와 계층에서 나타나는 전지구적인 문제(Global Problem)이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현시적인 문제(Con-current Problem)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성과 노인의 소외문제는 현재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격차가 벌어지리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연령층에서 정보화 되지 못한 상황과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급진적인 정보화로 인해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III. 가족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자료 분석

앞에서 지적인 가족의 삶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정보화가 가족 전반에 걸쳐 어떠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가족을 구성하게 하는 두 가지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성과 연령별로 이러한 정보화에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힌 것이다. 또한 두번째로는 이 중에서 정보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가족관련 가치관은 어떠한가를 살핀 것이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현재 우리 가족의 정보화 수준과 더불어 이들의 가족과 친족에 관한 태도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표 3-1〉 성별에 따른 정보화 지표의 친숙도와 이용도

내 용	친숙도	남 / 녀	이용도	t값	남 / 녀	t값
인 터 넷	2.26(714)	2.42(366) 2.09(344)	4.33***	1.47(712)	1.68(365) 1.24(343)	6.74***
정 보 화	2.59(712)	2.75(365) 2.42(343)	4.64***			
pc통 신	2.50(713)	2.65(366) 2.34(343)	3.85***	1.67(712)	1.90(364) 1.43(344)	6.50***
컴 퓨 터	2.81(715)	2.99(367) 2.63(344)	4.72***	2.42(715)	2.74(367) 2.08(344)	7.30***
전자우편 (E-mail)	2.06(712)	2.28(366) 1.82(342)	6.18***	1.44(709)	1.63(363) 1.23(342)	6.31***

\*p&lt;.05, \*\*p&lt;.01, \*\*\*p&lt;.001

### 1. 가족내 정보화 수준의 불평등

가족내 구성원들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수준에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화 수준을 알아보았다. 여기에서의 정보화 수준이란 인터넷, 정보화, PC통신, 컴퓨터, 전자우편(e-mail)로 제시된 정보화 지표에 대한 친숙도와 사용도를 의미한다. 즉, 각 정보화 지표에 대해 각기 어느 정도나 친숙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나 이용하는지를 4점 리커트 척도로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숙하고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서울시 거주 연령별 성별 분포를 기준으로 전체 구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이므로 전반적인 서울시민의 현재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에서 정보화를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자들의 평균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정보화, pc통신, 컴퓨터 등을 '별로 친숙하지 않다'에서 '약간 친숙하다' 정도로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각 지표에 대한 이용도의 수준 역시 낮게 나타났다. 단지 이중 컴퓨터의 경우만이 한 달에 한 두 번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사이를 이용하고 있어 가장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친숙도의 경우도 역시 컴퓨터가 가

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바이다. 친숙도와 이용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수치들이 나타난 바를 보면, 특히 친숙도 보다 이용도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실제로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실제 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약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친숙하다고 느끼는 있는 듯하다.

정보화 지표에 대한 친숙도와 이용도에서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응답에서 남성들의 점수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는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든 지표에서 연령별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경우, 특히 20대의 경우에 친숙도와 이용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이러한 정보화가 실생활에 어느 정도 친숙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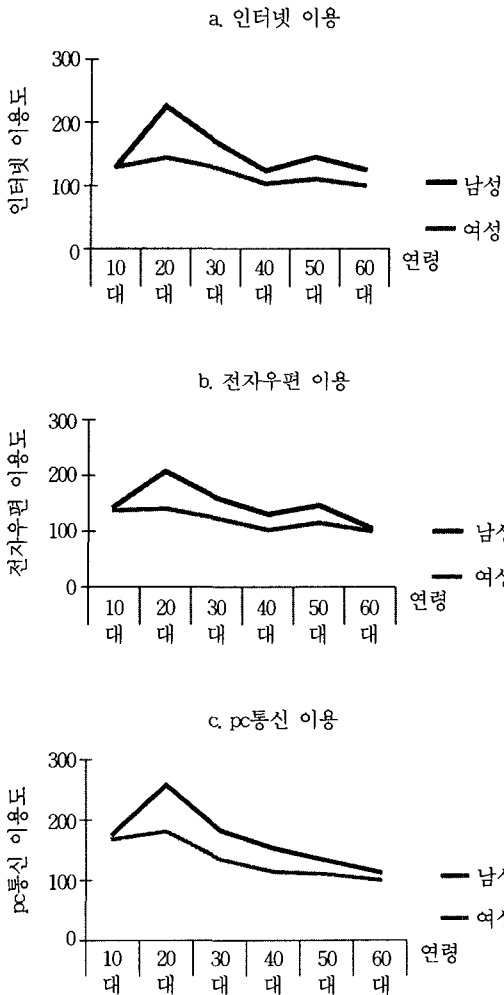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친숙도의 경우는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가 없으나 이용도의 경우에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3-1〉을 보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20대의 남성이 인터넷, pc통신, 전자우편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이용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격차가 비단 20대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연령층의 경우는 오히려 실제 이용도가 남녀 모두 낮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여성이라고 할 때 자녀세대의 여성과 어머니 세대의 여성을 동일하게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는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최근 추세는 정

보불평등을 해소할 가능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즉 인터넷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PC통신 천리안의 경우 93년만 해도 여성비율이 12%에 불과하였으나 98년 32%등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999년 8월 5일 동아일보). 또한 미국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AOL)은 최근 지난해 여성고객이 52%를 차지해 처음 남성고객을 추월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e-마켓터는 여성고객이 96년 33%에서 97년 37%로 그리고 98년에는 42%로 늘었으며 2002년에는 5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999년 7월 5일 경향신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의 증가는 젊은 여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여성들의 온라인 이용 증가는 대부분 20대와 30대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신 이용의 증가는 가정 내에서 소비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여성들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참여가 정보권력에의 접근으로 직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 역시 계속해서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보격차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추세까지 감안한다면 성과 연령의 정보격차는 앞으로 분리되어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여성들의 온라인 이용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50대 여성의 인터넷 저항감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1999년 6월 15일 경향신문) 여성과 노인이 결합되었을 때 정보화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사회에서 노인으로 일컬어지는 구세대는 어떠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노인들이 안고 있는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의 악화라는 점이다. 즉, 현재 노인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서 정보사회로의 진행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고 보인다.

현재 노인의 지위를 요약하자면, 노인층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사회적 역할의 상실등 모든 측면에서 대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노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림 3-1〉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가?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에서 이러한 노인의 특성은 어떠한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답으로 노인 세대의 분리 문제를 조심스럽게 지적할 수 있다. 즉, 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없던 간에 이들은 여러 정보화와는 친숙한 세대가 아니다. 또한 이들의 경우에 이러한 생활양식에 익숙해지려는 동기 역시 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의 삶은 이러한 동기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삶의 질을 누려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등의 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지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미 정보화와 익숙해진, 그래서 친숙하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다른 가족원과의 상대적인 거리는 점차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손자녀 세대와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주공간 자체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노인세대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층의 경우 이들의 생활양식은 과거의 삶의 양식을 보존하는 지역이 더 선호될 수 있다. 이 경우 젊은 다른 가족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상호네트워크가 가능한 다른 형태의 거주공간을 선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공간과 다른 가족원들을 위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상대적으로 과거지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스티커 자판기 등의 유행이 가능한 것은 이런 기기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기계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에는 자판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쇼핑을 하기보다는 친절한 점원의 안내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쇼핑으로 비용절감으로 인한 혜택을 선호하는 반면, 노인층의 경우 기존의 인건비가 포함된 전통적인 쇼핑형태를 더 선호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므로 결국 능력이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정된 영업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인은 노인층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의 격차는 더욱 커지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다른 가족원과 다른 생활양식을 소유함으로써 분리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물론 가족원이 이러한 노인의 생활양식을 보존해야 할 하나의 문화와 전통으로서 존중한다면 나름대로 가치를 지닐 가능성도 있으나 비용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존립 불가능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오랜 삶을 살아온 노인들을 어떻게 해서 웹 생활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 단절되지 않은채 가족원들과의 유대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2. 정보화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관<sup>3)</sup> 특성

정보사회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의 문제를 가족에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어느 정도 정보화가 되어 있다고 보이는 집단들은 여러 가족관련 가치관에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규명한다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정보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관련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정보화 관련 지표의 실제 이용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후에 동일한 특성을 갖는 이들과 가치관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을 추출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된 정보화 이용지표에 있어서 전체 집단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적어도 2개의 지표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을 이용하는 집단들로서 약 80% 정도가 20대에서 30대에 해당하는 이였으며 73% 정도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화 집단과 비교집단의 가치관 비교를 위하여 20-30대의 남성만으로 다시

3) 여기에서 분석된 가치관은 가족주의 가치와 자녀관으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옥선화 등의 연구(199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위 25%와 하위 25%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sup>4)</sup>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동일한 연령층의 비교집단과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한 결과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있다. 여기에서는 가족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가족관련 가치관으로 가족주의와 자녀관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2>의 결과를 보면, 이들은 가족주의 가치에서 비교집단에 비하여 다른 경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들 정보화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가족주의 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sup>5)</sup> 또한 자녀관의 경우에 비용적 자녀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소규모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점수차이는 신중하게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준다. 보상적 자녀관의 경우 정보화 집단이나 비교집단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비용적 자녀관의 경우 정보화집단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조사대상의 수를 늘린 후속연구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나타날 모습에 대한 하나의 예측으로 조심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획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지만 모든 접촉이 개별적인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회에서 집합주의적인 가치는 현재보다는 그 위력을 더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족주의 가치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더구나 젊은 세대의 경우 기성세대에 비하여 이미 수평적인 구조에서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접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가치를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면적 접촉에 기반하지 않은 쌍방향적 의사소통은 상대의 권위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한 축적이 있을 때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가족의 일원인가 하는 것보다는 그 개인이 지닌 정보구성과 재창출 능력이 어떠한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표 2> 정보화 집단과 비교집단의 가치 비교

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가족주의 가치	정보화집단	62	53.03	10.75	-2.67**
	비교집단	63	58.13	10.62	
비용적 자녀관	정보화집단	63	20.92	4.32	-1.87
	비교집단	65	22.38	4.54	
보상적 자녀관	정보화집단	63	14.45	3.24	-.61
	비교집단	65	14.85	3.89	

### III. 요약 및 논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보사회는 과연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누구나가 속해있고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족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최근에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에 대하여 인간성 상실의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되돌리기에는 늦었다는 것이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폴 길스터(1999:297)가 지적한 대로 누군가 기술이 사회에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 기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이 안에서 가족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탐색하는 형식을 따라 보았다.

정보사회에서 가족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정보사회를 보는 관점을 현재에서부터 정의하였다. 특히 최근의 사회적 상황은 특히 인터넷등을 필두로 한 정보화를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현재부터

- 4) 정보화 상위 25% 집단의 다른 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정보화 집단의 이용도 평균은 14.03이며 비교집단의 평균은 4.81이었다. 따라서 이는 e-mail, 인터넷, 통신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집단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매일 이용하는 집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간의 정보화 지수차이를 t-검증한 결과  $t=42.60(p<.001)$ 이었다.
- 5) 2,30대의 경우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차이에 따라 이러한 변수의 응답에서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교육수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보사회의 미래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으로 대별되는 정보사회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형과 개인의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결국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와의 세대간의 격차를 양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가족내에서도 성간, 세대간 협력과 조화와 소외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 가족이 당면하게 될 문제는 크게 직장과의 재결합에서 오는 여성의 과부하 문제,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동성애나 사이버 부부관계의 문제들,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인터넷 공동체, 그리고 현재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동일단위로서의 가족이 과연 정보를 공유하는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가족은 가족 내에서도 정보의 불평등문제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여성 특히 주부와 노인 세대가 소외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화로 인해 가족의 미래가 그리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않는다. 새로운 network를 구성할 매체로 보이는 인터넷과 새로운 웹 생활양식은 오히려 새로운 가족생활을 열어줄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결국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사회에서도 인간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점이다. 정보화라고 해서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현재도 정보화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인간을 매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인 추구는 인간의 존재 가치일 뿐이다.

컴퓨터의 등장 이후 지금까지 컴퓨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부추겨온 것은 사실상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열풍에 휩싸인 게임들은 결국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인간과 인간의 싸움을 중재하는 것들이다. 결국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정보를 대하는 일종의 마인드 혹은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보화의 소외집단이 여성과 노인이 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중대한 이슈일수 있다. 정

보사회를 feminism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여성의 비약이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서도 계속해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관점을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는 정보사회에서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보여지는 재택근무의 경우 여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과부하의 문제와 여성의 정보격차 문제, 또 다른 측면은 최근의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인터넷 등의 사용에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여성들의 약진 문제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여성들이 공통된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모든 여성이 동일한 집단은 아니다. 따라서 가장 열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어머니이자 주부인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정보화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가족 내에서조차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딸들의 경우 고립된 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조차 인터넷을 통한 관계망으로 한계를 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이 지닌 섬세함과 인간을 배려하는 능력에서 오히려 두각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머니는 전자주택에서도 역시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의 가사노동만이 기대되고 있을지 모른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력이 강화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세대로부터 분리되면서 더욱 외롭고 고독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이다. 가족을 통하여 전 인간을 묶을 수 있는 공동분모를 찾아내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관적인 다중 사회가 될 지 모른다. 소수의 정보독점집단과 소외집단, 세대간의 분리를 떠난 고립, 정보 접근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권력등... 모든 것이 가족학 분야에서 지금부터 하나 하나 대처해 가야할 학문적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대처해야 할 하나의 방향으로 돈 태스콧이 제안한 개방적인 가족이 하나의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솔직함, 의사소통, 신뢰, 그리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등에 기초를 둔 열린 관계에 기반한 가족을 요구한다. 열린 가족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디지털 매체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이 때문에 올 수 있는 세대차이를 인정한다. 열린 가정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은 부모들이 이 새로운 매체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성장기의 호기심과 어려움을 모든 세대가 공유하며 이러한 상호교류의 문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수용한다. 즉 진정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권위주의가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불건전한 인터넷 자료에 대해서도 서로 토의하면서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방적인 가족만이 매체를 비평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돈태스콧, 1999:385-416).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개방적인 가족은 지금까지 가족학 전 분야에서 다루어온 가족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과 권리를 지니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가족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가족인 것이다. 결국 다가오는 미래는 가족학자들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다루어 왔던 모든 개념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실현되는 사회일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제의 가족생활의 모습을 탐구하고 분석하며 이를 대중에게 알리려는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업화된 인터넷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것처럼 인터넷이 개방적인 가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과 가족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의 감시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동력의 혁명이었던 증기기관의 발명과 보급이 결국은 우리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정보화 흐름은 우리의 가치관과 사회와 생활양식을 또 다른 체제로 개편해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가족이 놓여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짧은 글로 정보화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족내의 모든 측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단지 이러한 관심을 시작

으로 해서 정보사회에서의 가족에 관한 많은 연구와 탐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정보화관련 지수를 중심으로 한 비교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보화가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공성진·고기정. 1996. 정보사회의 도래와 교육부분의 변화, 포럼21, 10-67.
- 2) 김병조. 1997. 한국사회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에 관한 세미나. 통계청·한국인구학회, 129-159.
- 3) 김유정. 1999.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일상커뮤니케이션 상황의 변화. 정보화 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 편, 87-127. 세계사
- 4) 김태현. 1993. 다양한 가족생활유형.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가족학, 139-166.
- 5) 하우돈태스콧저. 허은나·유영만 역.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몰푸레.
- 6) 류영달. 1998. 재택근로의 전망- 새로운 노동양식으로의 탐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재택근로의 전망과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1-23.
- 7) 문숙재·김지희. 1997. 가족자원활용을 위한 재택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 8) 배규한·임창규. 1999. 한국 5대 도시의 정보화수준과 정보격차. 정보화 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한국언론학회·한국사회학회편, 509-529. 세계사.
- 9) 빌 게이츠 저. 안진환 역. 1999. 빌 게이츠@생각의 속도. 청림출판
- 10)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 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 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 11, 157-182.
- 11) 이동원·최선희. 1997. 정보화와 청소년의 소외,



- 가족학논집, 9, 145-170.
- 12) 정태영. 1997. 사이버스페이스 문화읽기. 나남.
  - 13) 조성혜. 1995. 제택근무자(텔레커뮤터)의 시·공간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14) 조은. 1996. 정보화 사회와 여성·문화. 나남.
  - 15) 존 하겔 3세·아더 암스트롱 저. 한영주 역. 1999. 가상사회와 전자상거래. 세종서적.
  - 16) 폴길스터 저, 김정래 역. 1999. 디지털 리터러시. 해냄.
  - 17) 페이스 팝콘·리스 마리골드 저. 조은정·김영신 역. 1999. 클릭! 미래 속으로. 21세기 북스.
  - 18) 통계청. 1996. 서울통계연보
  - 19) 한국여성개발원. 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 20) 홍성걸. 1997. 정보교육론. 정보정책론, 347-384.
- 나남출판
- 21) Fawcett, James, Sonia Albores & Fred Arnold. 1972. The value of children among ethnic groups in Hawaii: exploratory measurements, In James Fawcett(ed.) *The Satisfaction and Costs of Children: Theories, Concepts, Methods*,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234-259.
  - 22) Richins M. L. 1987. Media, materialism, and human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4, 352-256.
  - 23) 1999년 12월 31일 중앙일보
  - 24) 1999년 8월 5일 동아일보
  - 25) 1999년 7월 5일 경향신문
  - 26) 1999년 6월15일 경향신문